

남원시, 방치된 폐슬레이트 대대적 처리 나서

시, 3억2000만원 투입 11월부터 본격 추진 시민 안전과 건강 위협 요소 적극 해소키로

남원시가 읍·면·동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대대적으로 처리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로 했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위해 2만7600㎡를 목표로 사업비 3억2000만원의 시비를 집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미 추경을 통해 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가 이번엔 추진하는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기존에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시는 10월 중 포장업체 및 운반·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11월 중에 사업에 착수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방치되어 있

는 폐슬레이트는 100% 가까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가 사업비를 대폭 늘려 폐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로 지붕 마감재로 사용된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낮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종,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8000여만원을 들여 폐슬레이트 9190㎡를 처리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1653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했다.

또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



남원시 관계자가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사전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군산지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 7월분 소급 지급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지역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최근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300인 미만의 기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지원내역과 지원 근로자를 특정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그간 지원이 제외된 단기취업자 중 '계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연말까지이며, 올해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수 있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이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 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면서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전주시, 사회적기업 지원 머리 맞댄다

간담회 갖고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 등 홍보 주력

전주시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사회적기업 협의회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각 부서는 물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전주시 지역 학교 등을 상대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 전 부서와 출연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참석한 사회적기업 대표들에게 오는 11월로 예정된 사회적기업 박람회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사회혁신 한마당 등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사회적기업 운영 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전기안전공사를 찾아 사회적경제기업 판매행사를 하는 등 공공기관들과 사회적 기업 가치를 공유하고 제품 공공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 시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우



지난 5일 전주시는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사회적기업의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제공>

선 구매로 약 52억을 달성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기업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에 힘을 계획"이라며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해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 홍보노 등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예비)사회적기업 74곳과 마을기업 5곳, 자활기업 14곳, 협동조합 329곳 등 총 42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전국체전 기간 120개 의료지원반 운영

제99회 전국체전(10월 12~18일) 주 개최지인 익산시가 체전 기간에 120개의 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시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주 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에 의료지원본부(사전)를 설치하고 경기장 20곳에 의사 23명, 간호사 170명, 응급구조사 170명, 운전원 113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반을 운영한다.

익산소방서, 지역 의료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기장마다 의료지원팀도 상주시킨다.

시는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을 체전 환자 이송·치료병원으로 지정했으며, 개막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 인근 원광대병원에 현장 응급의료소도 운영한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경기장과

주변의 친환경 방역소독도 마쳤다.

시는 수인성 감염병에 대비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식수관리를 강화하고, 150개 병원의 질병정보를 모니터링해 집단 환자 발생을 감시할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체전 참가자와 방문자를 위해 심뇌혈관 예방관리, 체성분 측정, 한의의 건강증진, 사상체질 검사, 구강 및 치매 관리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전북 유망중기 21곳 선정...업체당 5억씩 우선 지원 혜택

전북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21곳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중소기업지원기획회의(위원장 정무부지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의 자기진작과 자금성 고취를 위해 2018년도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21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기업은 (주)가온우드, (주)가자, (사)꿈드레장예인협회, (주)더존디자인조명, 주식회사 디앤디, 대흥산업가스(주), 벽진(주), (주)비엔디네트웍스, (주)새롬, (주)이수종합상사, (주)

에니에스, (주)에스에스티, (유)에스티원, 주식회사 엠닉스, (주)지예스관넬, (주)진산테크윈, 농협회사법인 청맥(주), (주)크리자인, 트라웍스, 한성테크(주), 황성공업주식회사로 총21개 기업이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인중

기간 5년으로 인증서와 인증협판이 수여되며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5억원까지 이차보전 3.0%로 지원(일반기업 3억원, 2.0%)받을 수 있으며,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우선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오는 19일에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사업 추진

고창군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오는 2020년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매립장의 매립공간 확보와 순환 이용을 위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총 90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매립장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정비해 가연성·불연성 생활폐기물과 토사를 재분류해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재매립, 토사는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군은 오는 2019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